

在 獨 韓 國 人 科 學 技 術



『故國에 對한 關心은 많습
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
움」에 우리가 온 것은 故國
을 爲하여 무엇을 돕는 다
는것 이전에 故國에 關한
여러가지를 알고 겸손한 마
음으로 함께 배워서 現代化
發展에 도움이 되는 最善의

努力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威仁英 (在美韓
國科學技術者協會長) 博士는 밝혔다.

7月 29日에서 8月 9日까지 열린 科學技術綜合「심포
지움」에 參席키 爲해 在美科學者 150餘名을 인솔. 지
난 7月 28日 KAL機便으로 來韓한 威仁英博士는 現在
美國 「펜실바니

아」大學校 教授
로 在職中이다.
威博士는 『美
州에 거주하는
韓國科學技術者
들의 相互 紐帶
와 긴밀한 親睦
으로 故國의 科
學技術 및 産業
經濟發展에 조
금이라도 도움
이 될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취
지로 71年 12月
에 「워싱턴」市
에서 在美科協
을 創立케 되었
다』고 章程 目
다』고 은근한 致賀도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故國을 배우러 왔다

威仁英 在美科協會長

→ 的을 밝히고 創設당
시 70~80餘名에 불과
했던 在美科協의 現在
會員은 1,000餘名이 上
廻하고 있다고 즐거운
表情을 보였다.

또 威博士는 支部組
織에 대하여 『美州各地
域에 현재 正會員 30名
으로 構成된 13個支部
와 正會員 10名으로 構
成된 6個의 分會가 있
다』고도 말해 在美科協
의 活潑한 활동상을 暗
示해줬다.

특히 威博士는 『自己
職場에 充實하면서 協
會事業에 奉仕하고 있
는 會員들의 熱意가 크

『韓國 科學技術에 關한
政策의 시스템은 世界 어느
先進國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은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李春植 (在獨韓國人科學技
術者協會長) 博士는 떠난지
14年만에 다시 보는 韓國이
이렇게 發展 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1960年에 젊은 科學徒로서 푸른 꿈을 안고 科學의
나라 獨逸 (西獨)로 向했던 李博士는 現在 西獨에서도
손꼽히는 化工機械製作工場인 Böttner-schilde Haas
會社에서 일하고 있다.

李博士는 『그러나 이
훌륭한 정책을 遂行해
내려면 보다 많은 科學
人力이 輩出되어 Syst-
em의 뒷 받침이 되어
야 하겠다』고 強調했다
『西獨은 電子分野등 特
殊分野에서 美國이나
日本등에 약간 뒤지고
는 있으나 重化學工業
面에서 發展上을 보이
고 있는 나라로서 특히
機械工業分野에서는 많
은 발전을 해 왔다』고
전했다.

李博士는 이번에 開
催된 科學技術綜合「심
포지움」에 關해서도 『참
으로 좋은 계기를 마련
』
李博士는 이번에 開
催된 科學技術綜合「심
포지움」에 關해서도 『참
으로 좋은 계기를 마련
』

李博士는 現在 Bad Hersfeld에서 부인 김정자(34歲)
女史와 함께 슬하에 1男1女를 두고 있다.

훌륭한 政策엔 科學人力 따라야

李春植 在獨科協會長

→한 이번 大會가
故國의 科學發
展에 크게 보탬
이 될것이다』라
고 말하고 『알
으로 在獨韓國
科學技術人들도
祖國을 爲한 努
力을 아끼지 않
겠다』고 말했다

1973年 在獨
韓國科學技術者
協會를 創立하
고 現在 在獨科
協初代會長職을
당고 있는 李博
士는 50年 서울
工大를 卒業하
고 60年에 渡獨

<편집부>

1954年에 渡美한 威博士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略歷 ◇ 1925年 황해도 출생 ◇ 48年 서울공대
졸업 ◇ 56年 美國네브라스카大學院卒業 ◇ 58年 工學
博士(위스콘신대학) ◇ 60~62年 상공부차관 ◇ 63~
65年 펜실베니아州立大學조교수